내 얘기 남에게 듣기

(막2:6~12)

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얘기 남에게 듣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내 얘기 남에게 듣기'
내 얘기인데 나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나만 모르고 있던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
이게 엄밀히 말하면 신앙인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내 얘기를 언제나 남에게 듣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입니다.
밴쿠버로 이민을 오신 한국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신 모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계

셨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묻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모 교회인데 대형 교회입니다.
2만 명 가까운 교인이 출석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아느냐고 물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알고 있다고 그 교회와 뭐 어떤 연관성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름만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저에게 갑자기 '태 목사 절대 경거망동하지 마!' 그래요.
그러시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회 당회에서 꽤 오랜 기간, 현재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후계자 목사님을 선정하는데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의 70~80%는 확정적으로 저를 청빙하기로 결정을 해 가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의사를 타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의사를 타진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의사를 타진했다가 거절을 하게 되면 교회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의사를 타진해 보느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미 그때 전화를 받을 때는, 인터넷을 통한 말씀전파에 그저 제 사명을 다할 것으로 결심을 하고 있던 터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의사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모르고 있는데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제가 어떻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일에 저와 연관된 공식적인 일을 서로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을 비유로 생각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게 바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반드시 내 이야기를 나도 모르는 내 이야기를, 남에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죄 사함 받은 자에게 남이라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그런 남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자, 타인.
그러면 신앙인, 죄 사함 받은 자의 신앙적 삶에 있어서, 나 말고 첫 번째 남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남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첫 번째 내가 만나야 할 남은 예수님이세요.
남에게 듣는다, 내 얘기를 언제나 남이신 예수님에게 듣고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들려서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가면서, 죄 사함의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죄 사함에 관한 문제를 서기관들과 논쟁적으로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합쳐져 있습니다.
죄 사함과 중풍병이 나아서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본문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은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이해를 해 봅니다, 중풍병자 이 사건을.

이 사건은 중풍병 때문에 왔을지라도 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들이 마음이 급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 받은 뒤에, 적어도 그 순간에는 잊어버렸던 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내가 만나고 있는 첫 번째 남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잊고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중풍병에서 놓임을 받아라! 나에 관한 이야기에요, 그걸 남에게 듣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나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

왜 잊습니까? 나에 대해서 잊는 이유가, 애인이 결별하자고 했기 때문에 애인 생각하느라고?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사업생각 하느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나를 잊어버렸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잊고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습니다.
참~ 성경해석이 어려운 것은, 성경본문이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성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영성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성에 도달하기까지는, 언제나 우리의 이해는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미흡한 거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데 또 어려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 너무나 여러 가지 전제와 선입견이 얽혀서, 마치 정글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제들과 선입견이.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향해 왔고, 중풍병자가 열심을 내서 지붕을 뚫었다고 하니까, 중풍병자로서 열심과 열성은 모두 다 중풍병을 낫기 위한 것으로 단정해 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중풍병자의 관심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마가가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성경을 해석한 한 예인데 보세요,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를 말씀하시더니' 가 1장에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분위기와 완전히 바뀐 것을 마가가 일부러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도를 말씀하고'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뭔가는 하시겠지요.
'도를 말씀하고'는 빼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 이 말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 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므로 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가기 위하여 지붕을 뚫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지붕을 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중풍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중풍병과 같이 심각한 자기의 필요가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의해서 느끼는 자기 필요의 압박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 현장에서 못 들으면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까, 그 말씀!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타이밍에 지붕을 뚫고 내려갔다!
'지붕을 뚫고 내려갈 때 이 네 친구와 중풍병자의 마음의 관심은 중풍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지고 내게 필요를 느끼게끔 하는 나의 필요조차도 잊어버린 채, 예수님만을 관심해서 마음이 예수님 자체를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

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바로 죄 사함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은 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 말은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낯설 수도 있지만 아~주 기독교의 본질적인 기둥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지붕을 뚫는 이 모습이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과 일맥상통한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이야기를 내가 한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한다는 말이에요.
내 필요를 내가 느끼면서 내 필요를 채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또 어디로 통하느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이야기 할 때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입 다물고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죄가 뭡니까? 죄!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죄 사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면 내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필요! 내가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가 하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자는 내 이야기를 첫 번째 남 되시는 예수님께 들으며 사는 자예요.
나는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오직 내 마음의 관심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집중되는 것, 이게 바로 죄 사함 받은 상태의 삶이고, 이런 경우에 언제나 나에 대한 이야기는 남이신 예수님께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어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지붕을 뚫었습니다.
이 태도로 살 때 복음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마가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과 같이 강한 압박감을 갖고 밀고 들어오는 내 생활의 필요, 잊어버려라!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이 죄 사함 아닙니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돈의 압박! 중풍병같이 밀려들어옵니다, 가족의 문제! 중풍병같이 내게 압박을 느끼게 합니다, 당장 먹을 끼니가 없게 만듭니다, 당장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내 병이 중풍병 같은 다른 병들이 내 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오직 마음의 관심은 예수님께로 향해라!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래서 과녁이에요 과녁!
예수님이 과녁! 마음의 화살을 쏠 과녁입니다.

죄 사함 때문에 논쟁을 벌입니다.
서기관들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 한분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이 맞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과녁이 된다는 얘기이고, 이 말은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한조각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과녁을 향하여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과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죄 사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 이 세상의 경계 안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유일한 과녁이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예수님께로 마음의 화살을 쏘면, 하나님께로 쏜 것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외아들을 보내셨다 얘기해요.

이 세상에 허락하신 유일한 과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애인도 아니에요.

내 사업도 아니고, 내 일도, 꿈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화살을 쏴야 될 수 있는 유일한 과녁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사할 권세가 있는 거지요, 과녁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과녁을 쐈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앞에 나갔을 때 그 태도자체가 죄 사함이고, 들으려고 내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그 태도가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를 잊어버리고, 내 이야기를 안 하고, 내 얘기를 들려드리는 대신에 듣고 경청하는 대상은 많아요.
왕 앞에서도 그러지요? 우리가 듣습니다.
선생님 앞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에게서도 들어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의 말을 내 얘기를 잊어버리고 듣는다고 해도 죄 사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과녁이 될 수 있어서,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죄 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갔을 때,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중풍병자 자신도 잊고 있던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참~ 본문이 미묘한 겁니다.
지붕 뚫고 내려간 게 중풍병자가 중풍병자를 낫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었고 그 예수님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도 나가서 고침 받겠다고 한 그것이 믿음이라서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중풍병자는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망각 속에서 사라져 버린 뒤에, 자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서 듣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런 거지요.
중풍병 걸려서 들것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 누워 있는 들것에서 일어나서 그 들것 들고 가라' 그랬을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 내가 중풍병 걸려 있었구나!'
이 태도가 바로 복음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부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해 말씀하시고,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 느끼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몸을 통해 세상을 느끼듯이, 성령님이 천국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재감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는데 갑자기 '너 어디어디 가서 부도위기에 있는 네 회사를 구해라'
깜짝 놀라 '어! 내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었구나!' 이게 이래 돼야 믿음이 멋있게 제대로 모양을 갖추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도의 위기에 있습니다' 내 얘기 내가 하지 마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얘길 내가 해버리면,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행동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부도위기에 있는 회사 생각이 자꾸 난다.
이때 십자가를 딱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러면서 내가 이 부도위기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왜 죽기를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중풍병 같이 회사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회사의 자금의 유통이 중풍 걸려 가지고 돌지를 않습니다.
이 위기의 압박감 속에서도, 그 중풍병 같은 회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냥 돌린다고 해서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관심을 어떻게 떨쳐내겠습니까?

자식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 모양으로 가다간 대학은커녕 아무 인간노릇을 못하게끔 돼 버렸습니다.
이때 자식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의 관심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진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죽음으로 돼 가면서, 내 자식문제, 내 인생문제, 건강문제, 사업문제 이거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만큼 기도해요.
그게 10분 20분 30분에 안 될 때도 있어요. 1시간해야 되고 2시간해야 될 때도 있고, 2시간해도 안 될 때도 있지만, 이게 바로 신앙인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지붕 뚫어가는 그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다 드리려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자청하며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게 진정한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이 뭐에요? 죄! 죄! 죄! 죄! 죄!
하나님 말고 내 마음이 자꾸 다른 것에 꽂히는 거예요, 그게 죄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붙잡으면서 다른 과녁을 다 치워버릴 때 그 순간에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죄 사함.
법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악의 힘이, 이 내 존재, 몸을 입고 있는 내 존재에 깊이 뿌리 박혀 가지고 끊임없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 죄 사함이라는 거는 이 죄의 능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 죄의 능력을.
내 마음에 자꾸 다른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죄의 능력을.
그래서 '오호라 곤고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관심을 집중할 때, 하늘에 대한 많~은 것들이 느껴지고 알려지면서 동시에 나도 잊고 있던 내 이야기를 성령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십니다.

나는 항상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내게 그게 필요했었구나!' '아! 나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교회 당회장 자리를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구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는구나!'
내 이야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 내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직 마음의 관심을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 대해서 잊고 하늘에 보내면, 내 이야기, 첫 번째 남 되시는 예수님에게 들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죄 사함 받은 자의 삶이지요.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이야기 첫 번째 남 되시는 예수님에게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셔서, 진정으로 죄 사함이 단순히 명분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죄 사함의 효과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